

# 위기의 40대

생활고...이혼...실업...자살·살인 잇따라

40대가 흔들리고 있다. 생활고·이혼·실업 등 삼중 고(三重苦)를 얹어지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버텨내야 하는 이들이 자살(自殺)·살인(殺人)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택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J아파트 324동 앞 주차장에 세워진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서 견죽업을 하는 김모(44)씨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내연녀 K(여·44)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김씨는 범행 5시간 뒤 광산구 신촌동 자신의 집에서 극악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남동생에게 “형 노릇을 제대로 못해 미안하다. (사업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렸다”는 내용의 e메일을 남겼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약 9개월 전부터 중학교 동창인 K씨를 만나왔지만, 최근 K씨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절교선언을 하자 환김에 K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 군산시 청간면 모호별 5층 객실에서 아버지 김모(47)씨가 10대인 자신의 세 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자신의 양쪽 손목을 자해했다.

김씨는 미망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려온데다 최근 아내마저 가출해 쳐지를 비관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J월룸 2층 오모(여·44)씨 집에서 오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나모(43)씨가 오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사회에서 인정 못받고  
집안에서는 기 못펴고  
쌓인 불만 극단적 표출**

이는 이혼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해 40~44세 남성의 이혼율은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가 평균 12.4건으로 가장 높았다. 일반이혼율(남자 6.6 건·여자 6.5건)에 비해 약 두 배 높은 수치다. 45~49세의 이혼율(10.2건)도 10.2건으로 35~39세(12.0건)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여자도 40~44세가 11.2건으로 높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43) 교수는 “40대는 뇌직의 위험으로 항상 불안해하고, 가정에서는 자식 부양의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고통받는 이른바 ‘끼 세대’”라면서 “아버지·남편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직장에서 부하직원이나 상사에게 무시 받을 경우, 아무 일도 아닌 일이 기폭제가 돼 극단적인 방법으로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영세 농민 명의 빌려 저축 수천만원 쟁기 ‘얌체 부부’

화순의 한 농협 조합원 부부가 영세 농민들의 명의를 빌려 금리가 일반 예금보다 높은 ‘농어가복 둔마련저축’에 가입, 수천만원을 쟁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화순 D농협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 농협 조합원 이모(58)씨 부부와 북면 영세 농민 8명이 ‘농어가복 둔마련저축’ 계좌 10개를 개설했다. ‘농어가복 둔마련저축’은 영세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 계좌 1개 당 600만원을 5년으로 나누어 적립하는데, 만기시 장려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920만원을 돌려받는 저축이다.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한 농민은 “이씨가 우리는 돈이 없어서 저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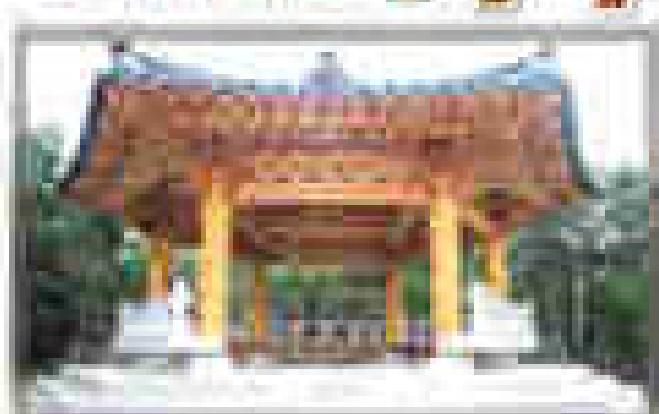
이씨는 하지만 “함께 저축에 가입한 농민들이 돈이 없어 적립을 제때 하지 못하자 돈을 대신 입금한 것”이라며 “물의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씨 부부는 또 문재가 불거지자 명의를 빌려준 농민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나눠주는 것으로 ‘사례’를 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어가복 둔마련저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목재가공산업의 새이름 *자이리*



목재가공사업의 모든 것 *자이리*

이름 목재가공에 관심 있는 것은  
*“자이리”*와 살피세요!

### ● 자이리 사업분야 ●

- 목재주택(시루집, 쇠집)
- 목재마루
- 목재가구
- 목재수납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협회  
전화번호 061-337-5535  
팩스 061-334-5535



## 성인오락실 상대

## 상품권 사기 극성

### 목포 등서 수억원 피해

목포와 해남·영암 등 전남 서남권 일대에서 성인오락실 업주 등을 상대로 한 수억원대의 속칭 ‘네다바이’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4일 목포와 영암 등지의 성인오락실 업주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교환 및 판매업자를 사칭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이 최근 전남 서남권 일대 성인오락실을 상대로 4억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채 도주했다.

자신은 ‘강모씨’라고 밝힌 30대 남성은 지난 8일 영암군 삼호면 A성인오락실에서 업주 양모(46)씨에게 “기존 문화상품권은 문제가 많아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 특정 회사에서 발행한 진흥권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강씨의 말에 속은 양씨는 가지고 있던 기존 상품권 7천매(시가 3천400여만원)를 강씨에게 전달했고, 강씨는 교환 확인서를 써 준 뒤 “이틀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고 떠났지만 이후 소식이 끊겼다.

앞서 지난 5일 해남군 문내면 B성인오락실도 강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문화상품권 5천매(시가 2천500여만원)를 ‘네다바이’ 당했다. 이 오락실 대표는 “해남에서만 5~6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근 목포 하당지역 성인오락실 업주 10여명도 피해를 입어, 피해 금액만도 대략 4억여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 박종철 열사 20주기 추모식

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박종철 열사 20주기 추모식 및 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 선포식에서 박 열사의 부친 박정기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건설사 대표 피습’ 수사 난항

‘건설사 대표 피습 사건’(본보 1월 13일 3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범인들의 윤곽이 아직 잡히지 않는 데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건설사 사주 납치사건’의 범인들도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은 14일 “S건설 사장 김모(52)씨가 광주시 남구 봉선동 자신의 집 앞에서 과한들에게 피습당했을 때 주민 1명이 목격하기는 했지만 인상착의는 전혀 보지 못했다”면서 “김씨도 범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 용의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피습사건과 지난해 11월 있었던 M건설 사주 공모(52)씨의 납치사건 용의자 6명을 잡아야 두 사건의 연관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현기자 jhlm@kwangju.co.kr

## 길에서 할머니 성폭행

## 미군 병사 구속 영장

서울 마포경찰은 14일 노상에서 60대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주한미군 G(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공씨의 납치사건 용의자로 불잡았다가 경찰의 지휘로 석방한 ‘국제 PJ파’ 중간 보스 J씨의 처남 이모(37)씨를 상대로 범인들의 신원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이리저리 잠적하고 있어 수사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 수배된 공씨 납치사건 용의자 6명을 잡아야 두 사건의 연관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산에 도박장...48명이 상습 도박

○…도심 인근  
성나팔  
야산에 몰래 도박  
장을 개설, 장소를  
옮겨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온  
일당 48명이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

○…14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임모(여·47)씨 등 48명은 지난 12일  
밤 8시부터 11시20분까지 광주시 북  
구 문흥동 부용산 인근 한 식당에서  
화투 5장의 끝수로 승패를 정하는 속  
칭 ‘도리짓고방’ 도박을 했다는 것.

○…주로 주부와 무직자인 이들은  
하루 평균 2천만원씩 약 한 달 동안  
총 6억 원의 도박판을 벌였는데, 경찰  
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인근  
에 무전기를 든 감시원을 배치하고  
장소 6곳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고.

○…이들은 단속 나온 경찰과 방송  
사 카메라가 갑자기 도박장에 들이닥  
치자 돈을 호주머니에 쑤셔넣고 얼굴  
을 푹 숙인 채 도망치는 등 반탕 소동.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목재가공산업의 새이름 *자이리***

● 목재주택(시루집, 쇠집)

● 목재마루

● 목재가구

● 목재수납

● 자이리 사업분야 ●

- 목재주택(시루집, 쇠집)
- 목재마루
- 목재가구
- 목재수납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협회  
전화번호 061-337-5535  
팩스 061-334-5535